

# 귀찮은 연말정산 '끝'...이젠 원스톱 일괄 서비스

###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비 5% 넘게 증가시 최대 100만원 추가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5%P 상향...단순노무직 등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올해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을 필요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보다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을 경우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은 뒤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들은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해주면서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1월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되며,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으며, 간소화 자료를 전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증가했을 때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밖에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 (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된다.

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됐으며,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교세된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선운2 신혼희망타운 내년 2월 741가구 분양

### LH, 3월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3일 광주 선운2공공주택지구 내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을 내년 2월 분양한다고 밝혔다.

신혼 희망타운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선다. 이번 분양은 공공분양주택으로 55㎡형(24평)이며 총 741가구다. 내년 2월 모집 공고에 들어가 3월 청약 접수하며 5월에 계약, 2025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

신혼 희망타운은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놀이터 등 보육 중심의 공동시설을 확대한 육아 특화 설계가 적용됐으며, 입주자 구성원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변형 벽체를 적용한다.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등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단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으로, 총자산과 소득 등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선운2지구는 39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LH분양·임대 1830호를 비롯해 총 2918호 공동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잠들어 있던 은행·보험사 휴면계좌 찾아 연말 용돈 챙기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올 161만6000건 지급

지난 20일 이모(60)씨는 생계자금 햇살론15 대출을 상담하기 위해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가 휴면예금을 발견했다.

광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운전자금 부족을 겪어왔었다. 대출 상담을 받은 뒤 권유받은 대로 휴면예금을 조회해봤더니 보험회사 및 은행계좌에서 총 5건, 약 55만원의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신청을 한 그는 “가득이나 어려운 형편에 설 명절을 앞두고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 포함),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예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휴면예금 지급건수는 지난 한 해보다 253.6% 증가한 161만6000건(2312억원)에 달한다. 지급건수는 2019년 33만1000건(1553억원), 2020년 45만7000건(2432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진흥원 관계자는 “부채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

합지원센터를 찾은 고객들이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찾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비에 보태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휴면예금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accountinfo.or.kr)를 통해 기부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에는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광주·북광주·목포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잔액조회와 증명서 발급, 지급(기부) 신청, 정보변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 전화(1397·무료)나 온라인 ‘휴면예금 찾아줌’ (sleepmoney.kinfra.or.kr)으로 문의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0.5%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주당 정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

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 가량이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금융위가 중심이 돼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년 매생이 떡국 어대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이 제철 맞은 장흥산 매생이(한 덩어리 5000원)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